

국내 車시장, ‘SUV’가 장악... 싼타페·렉스톤 “픽 미!”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독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SUV의 판매는 독보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가 6년 만에 신형 싼타페를 선보이며 기아자동차의 쏘렌토와 중형 SUV 1위 경쟁을 예고했다.

또 SUV명가 쌍용차는 렉스톤 스포츠로 출시와 함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지엠은 에쿠노스 출시를 준비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현대차는 7일부터 신형 싼타페의 사전계약을 실시한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신형 싼타페는 ‘인간 중심 신개념 SUV’를 표방하며 첨단 신기술을 탑재했다. 사고를 능동적으로 예방해주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 및 전방 충돌 경고(FCW), 차로

현대차, 신형싼타페 7일부터 사전계약 전방충돌 방지 보조 등 첨단기술 탑재

기아차, 쏘렌토 앞세워 1위 자리 지키기

이탈방지 보조(LKA), 차로 이탈 경고(LDW), 운전자 주의 경고(DAW), 하이빔 보조(HBA) 등 다양한 핵심 지능형 주행안전 기술(ADAS)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했다.

또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통해 원격제어, 안전보안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텔레매틱스 서비스 ‘블루링크 2.0’을 장착했으며, ‘카카오톡 I(아이)’의 음성인식 서버를 활용한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로 내비게이션의 검색 정확성을 높였다.

특히 싼타페는 지난 2012년 3세대 모델 출시 이후 5년 넘게 판매해온 노후 모델임에도 지난해 5만대가 넘게 판매되며 인기를 끌었다.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적용한 만큼 쏘렌토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러 현대차는 수소전기차 SUV 넥쏘를 다음달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중형 SUV 시장 절대 강자 쏘렌토를 앞세워 1위 자리 지키기에 나선다. 지난해

쌍용차, 렉스톤 스포츠로 경쟁 불지퍼
지난달 기준 계약대수 9000여 대 육박

한국지엠, 중형 SUV 에쿠노스로 반격

9월 월 1만대를 판매한 쏘렌토는 출시 이후 줄곧 중형SUV 판매량 1위를 지키고 있다. 쏘렌토는 지난달에도 5906대가 판매되며 견재함을 과시했다.

한국지엠은 올해 2분기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형 SUV 에쿠노스로 반격에 나선다. 미국 시장에서 연간 20만대 이상 판매되며 경쟁력을 인정받은 에쿠노스는 현재 국내 마무리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3000만원 초반대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국산차와 정면 승부에 나선다.

SUV명가 쌍용차는 올 초 렉스톤 스포츠를 선보이며 가장 먼저 국산 중형 SUV 경쟁에 불을 지폈다.

G4렉스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렉스톤 스포츠는 출시와 동시에 2000대 이상이 판매됐으며 지난달 말 기준 계약대수가 9000여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차 브랜드도 다양한 SUV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BMW 코리아는 SUV ‘X시리즈’의 풀라인업을 구축해 판매 공세를 강화한다. 기존 X1, X3, X4, X5, X6 등 5개 라인업에 3월 출시 예정인 X2가 가세하면 총 6개 모델로 늘어난다. 특히 X2는 X3보다 가격이 낮은 데다 ‘작수’ 시리즈의 디자인 혁신 등을 내세워 고객 층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BMW 측은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엔 X4와 X5 풀 체인지(완전변경) 모델이 나온다.

메르세데스-벤츠의 2세대 완전 변경 신형 G클래스 역시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초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G클래스는 메르세데스-벤츠 첫 SUV이자 대형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랜드로버도 대형 SUV 2018년형 뉴 레인지로버와 2018년형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내달부터 판매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현대차 신형 싼타페.



▶ 쌍용차 렉스톤 스포츠.

샤오미 제품, 네이버 ‘클로바’로 켜고 끈다

네이버-中 샤오미, AI 동맹 MOU

네이버가 중국 IT기업 샤오미와 인공지능(AI) 동맹을 맺었다.

네이버는 AI 플랫폼 ‘클로바’와 샤오미의 기술 연계를 골자로 한 AI 분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샤오미 및 샤오미의 국내 총판인 여우미와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네이버 AI 플랫폼 클로바를 샤오미의 AI 기술과 연계해 기술 시너지를 꾀하는 동시에 샤오미 사물인터넷(IoT) 기기군으로 AI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MOU에 따라 향후 네이버 클로바 음성인식 기술로 샤오미 IoT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다. 샤오미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자사 IoT 기기의 인공지능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네이버와 협력해 AI 기술력도 제고할 발판을 마련했다.

샤오미의 국내 총판 여우미는 양사의 원활한 협력을 보조할 계획이다.

최인혁 네이버 총괄부사장은 “이번 샤오미-여우미와 제휴로 클로바를 통한 IoT 환경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왼쪽부터) 최인혁 네이버 총괄부사장, 흥취 샤오미 글로벌전략부사장, 한문호 여우미 대표가 업무협약(MOU)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이버

“클로바가 이용자들에게 일상생활 속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흥취 샤오미 글로벌전략담당 부사장은 “향후 한국 시장에서 출시하는 모든 샤오미 제품을 네이버의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바를 통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한국 소비자들에게 샤오미 제품을 더욱 친숙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LS그룹, 주주 권익보호·경영 투명성 강화

계열사·사외이사 구성 ‘내부거래’ 신설

활동내용 정기적으로 외부 공개
대규모 내부거래·이사겸직 등 심의

LS그룹이 경영 투명성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사외이사 역할을 강화하고 주주총회를 분산 개최한다.

LS그룹은 주요 계열사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하고, 활동내용을 정기적으로 외부에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그룹 내 주요 계열사 간 이뤄지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의 겸직 사항 등에 대해 사전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상반기 내 상장사인 ㈜LS, LS산전, 가온전선에서 우선적으로 내부거래위원회가 신설된다. E1과 예스코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자열 LS그룹 회장.

/LS그룹

또한 LS는 그룹 내 자산 2조원 이상인 면서 상장회사인 ㈜LS, LS산전, E1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사내이사에서 각 회사의 사외이사로 변경할 예정이다.

LS는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올해 슈퍼 주주대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를 피해 주주총회를 분산 개최한다.

특정일에 날짜가 겹쳐 주주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에 올해 슈퍼 주주대이로 예상되는 3월 23일, 29일, 30일을 피해 LS산전 20일, LS전선아시아 22일, 가온전선 27일, ㈜LS 28일로 각각 주주총회 날짜를 결정했다.

LS그룹 관계자는 “LS는 올해 초 가온전선과 예스코를 지주회사 체제로 편입 및 전환해 지배구조를 단순화 시키는 등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또한 실행하고 있다”며 “시장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투명경영 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

엔씨소프트 ‘리니지M’ 업고 ‘2조클럽’ 노린다

엔씨소프트가 모바일게임 ‘리니지M’의 흥행에 힘입어 연매출 ‘2조 클럽’을 코앞에 두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연간 매출 1조 7587억원, 영업이익이 5850억원, 당기순이익 4439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매출은 79%, 영업이익은 78%, 당기순이익은 64% 각각 성장한 수치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이다.

4분기 실적은 매출 5333억원, 영업이익 1892억원, 당기순이익 120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7%, 86% 상승했고, 당기순이익은 81% 증가했다.

연간 매출은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국이 1조3340억원, 북미·유럽 1404억원, 일본 433억원, 대만 383억원이다. 로열티 매출은 2028억원이다.

엔씨소프트 실적은 ‘리니지M’ 등 모바일게임이 견인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알뜰폰업계, CJ헬로 주축으로 힘 모은다

최근 보편요금제 도입 등으로 생존 위기에 몰린 알뜰폰 업계가 힘을 모은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신임 회장으로 SK텔레콤 임원 출신의 이석환 인스코비 사장이 선출됐고, 업계 1위의 CJ헬로가 협회 내 출범 예정인 비상대책반을 이끌며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앞장선다.

CJ헬로는 7일 열린 협회 총회에서 협회 이사로서 협회 내 비상대책반을 이끌며 도매대가 개선, 전파세 감면 등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주도하기로 했다. 비상대책반은 이달 중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CJ헬로는 지난해 11월 협회에 공문을 보내 회원사 간 이견차를 이유로 탈퇴의사를 밝혔지만, 알뜰폰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하기로 했다.

CJ헬로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환경이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그 심각성에 대해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다”며 “CJ헬로를 비롯 회원사들이 알뜰폰 사업의 명운을 걸고 사업환경 개선과 알뜰폰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매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비상대책반 활동은 망 도매대가 협상을 위주로 각 사들이 협의해 다듬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열린 총회에서는 제5대 회장에는 이석환 인스코비 사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임기는 이날부로 정식 취임해 내년 정기총회까지 1년이다.

이석환 신임 회장은 SK텔레콤 마케팅 본부장, SK텔레콤 차이나 대표, SK네트웍스 ICT 총괄 사장 등을 거쳐 현재 알뜰폰 업체 인스코비와 자회사 프리텔레콤 사장을 맡고 있다. /김나인 기자